

우리는 매일 대단한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가 제자 안연과 인(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던 장면입니다.
안연은 배움을 좋아하고 가난한 삶 속에서도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공자는 그의 이른 죽음 앞에서 깊이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강경현(유학대학 전임교수)

어느 날 안연은 공자에게 인이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그러자 공자는 “극기복례(克己復禮)”, 즉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라고 답합니다.

아마도 공자는 인간의 욕심이 나를 움아매고 우리를 다투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겨내야 하는 자신은 바로 이 욕심에 휘둘리는 나를 의미합니다. 일견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욕심은 나를 한결음 더 나아가게 해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고 싶은 생각이 들게도 하니까요.

그런데 공자는 인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이겨낼 것 만을 말하지 않고, 예로 돌아감, 즉 예의 실천을 함께 말합니다. 그리고 먼 훗날 12세기 남송의 주자는 이 “복례”에 착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이라는 것이 나의 욕심을 잘 통제하지만 하면 저절로 성취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주자는 이 복례에서 우리 삶으로의 참여를 보아냅니다.

주자가 생각했던 예의 실천은 우리네 삶의 일상에서 늘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며 이부자리를 정돈하고 깨끗이 씻고 나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진지하게 처리하면서도, 주변 사람들과는 진솔하게 만나는 것이 곧 예의 실천입니다. 네, 주자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적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학의 핵심이라 여겼던 듯합니다.

그리고 주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참여”의 가치를 읽어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순간이 모두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 가운데 특별히 짙어내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던 지점들에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순간,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는 순간, 이 공동체에 헌신했던 분이 우리 곁을 떠난 순간,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그분의 마음 씀과 노력을 떠올려보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주자는 이러한 우리의 소소한 일상으로의 집중이 곧 우리 공동체는 물론 이 세계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모두의 삶의 터전으로서의 이 세계는 모두의 참여를 통해 유지되고 존속된다는 것이지요.

유학의 최고 가치인 인은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자리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얼핏 보면 평범하고 아주 작아 보이는 하루하루의 소소한 일상을 진지한 태도로 보내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을 이어지게끔 하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삶이 갖고 있는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대단한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